

우리나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

## 의정토론회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통일 교육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2020. 12. 7.(월)  
PM 13:00 ~ 15:00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 개요

- 일 시 : 2020. 12. 7.(월) 13:00 ~ 15: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우리나라 초등학생 통일교육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

##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b>&lt; 개 회 식 &gt;</b>		
13:00~13:05	0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13:05~13:15	10' 인사말씀,내빈소개 등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b>&lt; 토 론 회 &gt; ※ 좌 장 : 이공휘 의원</b>		
13:15~13:45	30' 주 제 발 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부영 선임연구원
13:45~14:35	50' 지 정 토 론	· 토론자 4명(각 12분)
14:35~14:45	10' 패 널 토 론	· 패널 간 자유토론
14:45~14:55	10' 청 중 토 론	· 참여자 전체
14:55~15:00	5' 정 리 및 폐 회	· 좌 장(이공휘 의원)

# 목 차

## ■ 주제발표

- ☞ 우리나라 초등 통일교육의 실제와 향후 방향 ..... 1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 지정토론

- ☞ 우리나라 초등 통일교육의 실제와 향후 방향 ..... 21  
박종일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연구원)
- ☞ 충남통일관의 초등학생 통일교육 방법 및 방향 ..... 29  
김희동 (충남통일관 관장)
- ☞ 초등학교 평화·통일교육 방향 ..... 35  
주종한 (충청남도교육청 통일장학사)
- ☞ 우리나라 초등학생 통일교육의 방향 ..... 45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

## 의정토론회



##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통일 교육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 주제발표

## 우리나라 초등 통일교육의 실제와 향후 방향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우리나라 초등 통일교육의 실제와 향후 방향

2020. 12.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목 차

- 초등 통일교육의 목적 및 배경
- 초등 지역통일교육의 책임기관
- 독일의 통일교육 성과
- 남북한 통일교육의 방향
- 독일 통일교육의 성과
- 통일교육의 향후 방향

## I. 초등 통일교육의 목적 및 배경

### 통일교육의 개념과 원칙

#### 통일교육의 개념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

####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일교육을 위한 국가의 책무

- 국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함
- 국가는 통일교육을 시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초등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 초등학생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인식전환
- 초등학생의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인식전환은 학부모의 인식전환을 유도, 이는 충청남도 의회의 역할 제고
- 남북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이해 증진
- 통일에 대한 국민 저항 최소화 수용성, 정당성 제고
-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통합 대안 마련
- 북한 사회, 문화, 행정체제 분석 및 로드맵 연계

## II. 초등 지역통일교육의 책임기관

##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을 취소할 수 있음
- 현재 17개 통일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있으며, 경기도에 2곳 임
- 서울통일교육센터가 전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교육과 ‘체험형’, ‘감동형’ 평화 교육을 선도할 것으로 교류, 협력, 통일단계별 로드맵 구축
- 통일강좌 △통일 체험학습 △권역별 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한

##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기본 사업	열린통일강좌	•지역주민들이 통일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북한 등 다양한 소재로 토크쇼, 팀티칭, 토론식 시민강좌, 학부모 교육, 인문학 강좌, SNS 연계 강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지역센터, 지자체, 지역언론사 등과 협업을 통한 공동기획 장려)
	통일순회강좌	•학생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
	통일체험학습	•지역주민 및 대학생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분단현장 방문 등 체험형 통일교육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및 전문가 포럼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 통일담론 창출, 지역통일교육 선도 등을 위해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별로 워크숍 및 전문가 포럼 개최
자율 사업	통일문화축제·경진·경연대회 등	•지역 사회 통일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역문화 축제와 연계하거나 문화공연, 경진대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시(지자체,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신문, 방송 기획기사 보도 등 홍보도 병행)

※ 자율사업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음.

## 초등학생 통일 교육 진행

-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이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함
-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④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통일부 통일교육원 초등학생 통일교육

- 평화·통일 관련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통일거점센터
-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교육
- 통일교육원 참가신청, 참가대상자 선정과정을 통해 교육 가능
- 3교시의 수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 1-2교시는 남한과 북한 서로 알아가기로 남한 선생님 담당 형식으로 진행

## 초등학생 통일교육

- 통일어린이마당(월간지)
  - 통일교육개발연구원
- 어린이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 어린이 통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유튜브를 통한 초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다수
- 학교교육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과정 있음

### III. 독일의 통일교육의 성과

## 독일 정치교육센터

- 현존하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정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연방정치교육센터와 각 주의 정치교육센터를 설치, 대국민 정치 및 경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홍보 및 교육 실시
- 독일 통일이전과 통일과정에서 양 독일 국민의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체 인식 회복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통일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경제교육을 지원 및 실시
-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이해, 아랍권 국가에 대한 이해, 인권에 대한 문제, 기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함

## 독일 정치교육센터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 정치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자료를 통해 대국민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보고서를 정치, 국제관계, 사회현상으로 분류하여 게재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서는 학술논문, 저서, 보고서, 팸플렛, 정보 요약지의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음
- 다양한 정기간행물(학술잡지, 보고서, 정보지, 법령)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함
- 각종 세미나, 콜로키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과 공유하는 시스템 운영
-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프로그램의 참여를 오픈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함
- 판권에 따라 구매가 필요한 경우 구매할 수 창구를 만들어 고객센터
- <https://www.bpb.de/mediathek/183077/lange-wege-der-deutschen-einh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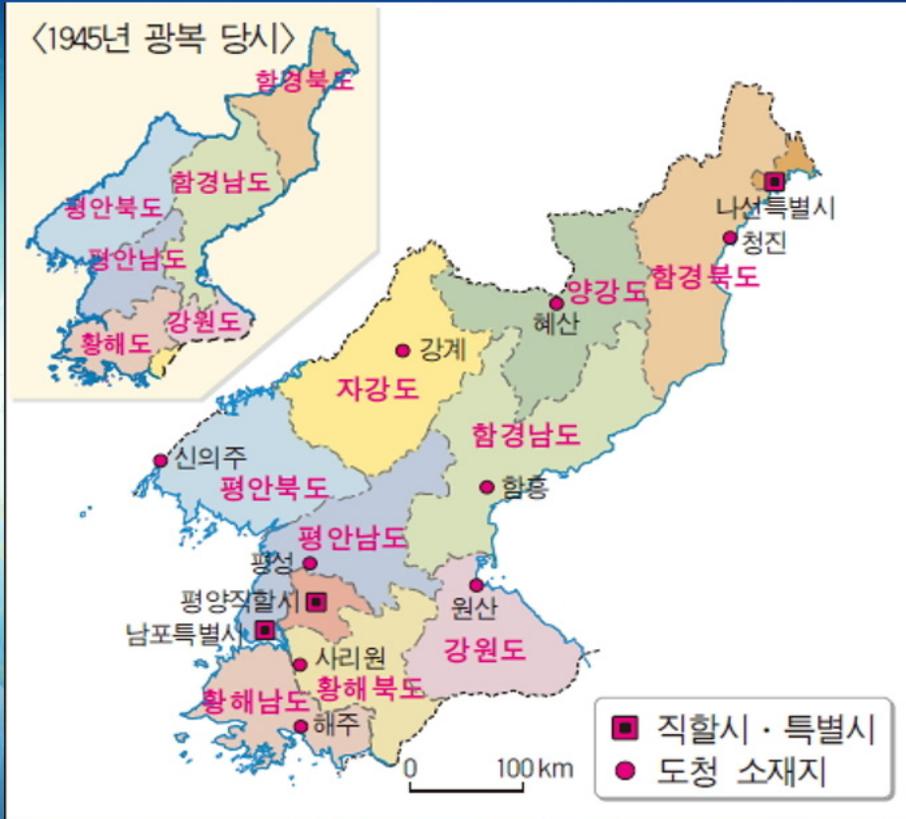
##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양독 간 이해 (1990년 12월 말까지)

구분	자매결연 조약체결도시 (서독도시-동독도시)	체결일시 (연/월/일)	주민수(명) (서독측/동독측)
1	Saarlouis - Eisenhüttenstadt	'86.04.25	37,625/48,200
2	Wuppertal - Schwerin	'86.11.14	381,903/126,000
3	Neunkirchen(Saar) - Lubbn	'86.11.26	50,382/14,200
4	Erlangen - Jena	'87.02.28	100,523/107,000
5	Saarbrücken - Cottbus	'87.03.18	188,763/123,000
6	Trier - Weimar	'87.05.24	94,628/63,600
7	Fellbach - Meißen	'87.05.28	39,733/38,700
8	Karlsruhe - Halle	'87.05.29	268,749/236,500
9	Bremen - Rostock	'87.07.23	530,520/242,000
10	Hof - Plauen	'87.08.04	51,183/77,900
11	Klei - Stralsund	'87.08.29	250,062/75,400
12	Hannover - Leipzig	'87.09.14	517,855/556,000
13	Flensburg - Neubrandenburg	'87.10.26	87,862/83,700
14	Lubeck - Wismar	'87.10.28	220,588/57,800
15	Hamburg - Dresden	'87.10.30	1,590,869/520,000
16	Bonn - Potsdam	'87.11.01	291,680/138,000
17	Mainz - Erfurt	'87.11.22	187,072/215,000
18	Osnabrücke - Greifswald	'87.12.03	154,690/63,800
19	Braunschweig - Magdeburg	-	225,411/289,000
20	Offenburg - Altenburg	'87.12.12	50,247/54,800
21	Marburg - Eisenach	'88.02.11	76,260/50,900
22	Ludwigshafen - Dessau	'88.02.12	155,965/104,000
23	Gottlingen - Wittenberg(Lutherstadt)	'88.03.16	132,977/54,200
24	Neu - Ulm - Meiningen	'88.03.25	46,441/25,500
25	Boblingen - Sommerda	'88.03.27	40,568/23,300
26	Aachen - Naumburg/Saale	'88.04.08	241,122/32,600
27	Düsseldorf - Karl-Marx-Stadt	'88.04.13	570,737/317,000
28	Dillingen(Saar) - Hoyerswerda	'88.04.19	20,341/70,700
29	Schwabisch Hall - Neustrelitz	'88.04.19	30,600/27,000
30	Heilbronn - Frankfurt/Oder	'88.04.20	110,576/84,800
31	Kaiserslautern - Brandenburg a.d.Havel	-	98,748/9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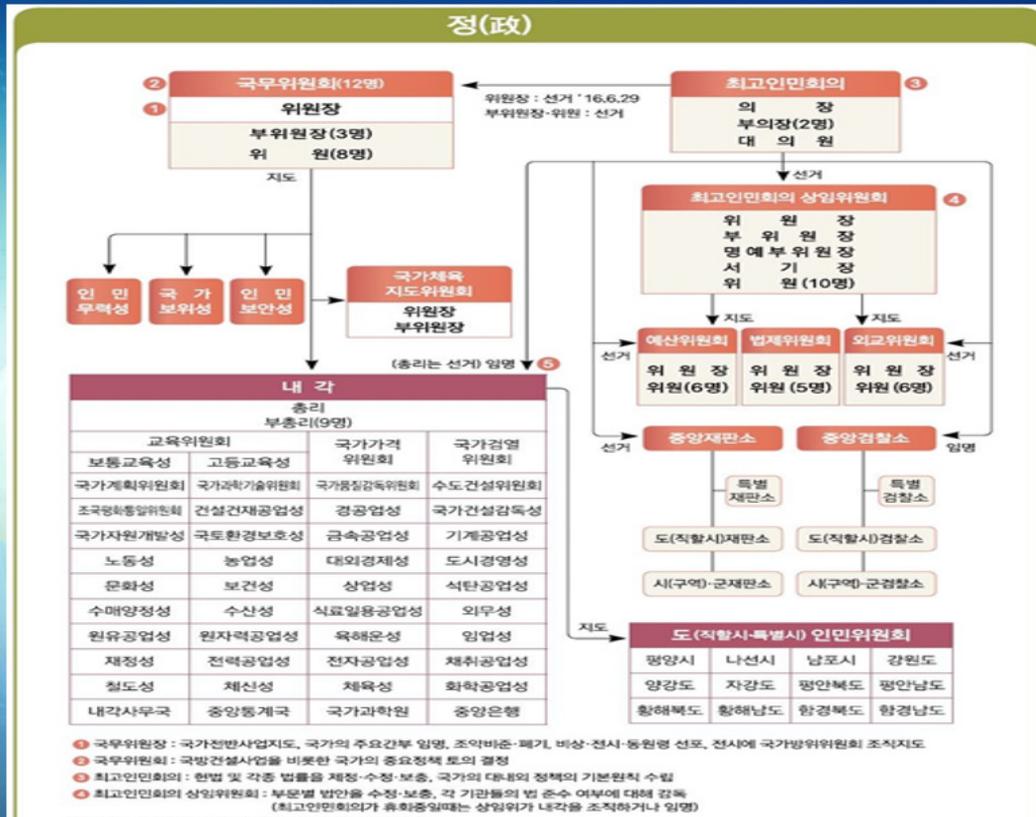
구분	자매결연 조약체결도시 (서독도시-동독도시)	체결일시 (연/월/일)	주민수(명) (서독측/동독측)
32	Eppelborn - Finsterwalde	'88.05.13	18,072/23,900
33	Wurzburg - Suhl	'88.06.10	129,995/53,500
34	Wurzburg - Suhl	'88.06.10	129,995/53,500
35	St. Ingbert - Radebeul	'88.06.10	41,015/35,000
36	Kronberg - Ballenstedt	'88.06.28	17,649/9,400
37	Mannheim - Riesa	'88.06.29	297,220/51,300
38	Salzgitter - Gotha	'88.07.08	108,358/57,700
39	Nürnberg - Gera	'88.07.22	468,352/131,000
40	Dortmund - Zwickau	'88.08.05	584,900/120,000
41	Lemgo - Stendal	'88.08.31	39,295/45,800
42	Sindelfingen - Torgau	'88.09.13	55,742/21,500
43	Berlin(Spandau) - Nauen	-	199,400/11,700
44	Berlin(Zehlendorf) - Königs-Wusterhausen	-	91,300/15,000
45	Nordhorn - Richtenbach	'88.11.03	47,886/25,400
46	Bottrop - Merseburg	'88.11.07	112,580/48,400
47	Neuwied - Gustrow	'88.11.16	58,958/39,000
48	Homburg(Saar) - Ilmenau	'89.02.22	41,600/27,800
49	Husum - Heiligenstadt	'89.04.25	24,153/16,100
50	Kassel - Arnstadt	'89.05.27	189,997/29,900
51	Neustadt a.d. W. - Wernigerode	'89.06.26	49,419/35,500
52	Unna - Dobeln	'89.06.29	57,100/27,000
53	Recklinghausen - Schmalkalden	'89.07.01	118,410/17,300
54	Wolfsburg - Halberstadt	'89.07.06	122,499/47,100
55	Lehrte - Staßfurt	'89.07.08	38,900/26,000
56	Kornwestheim - Weißenfels	'89.07.08	26,187/39,000
57	Reinheim - Fürstenwalde	'89.09.29	16,257/34,800
58	Leverkusen - Schwedt/Oder	-	156,500/51,500
59	Bad Schwanau - Bad Doberan	-	19,553/13,500
60	Puttlingen - Senftenberg	-	20,200/32,100
61	Eschwege - Mühlhausen	-	23,125/43,700

## IV. 남북한 통일교육의 방안

# 북한 지방행정구역



# 북한의 중앙국가기관 체계도



## 남북한 교육제도 비교

### 남한 교육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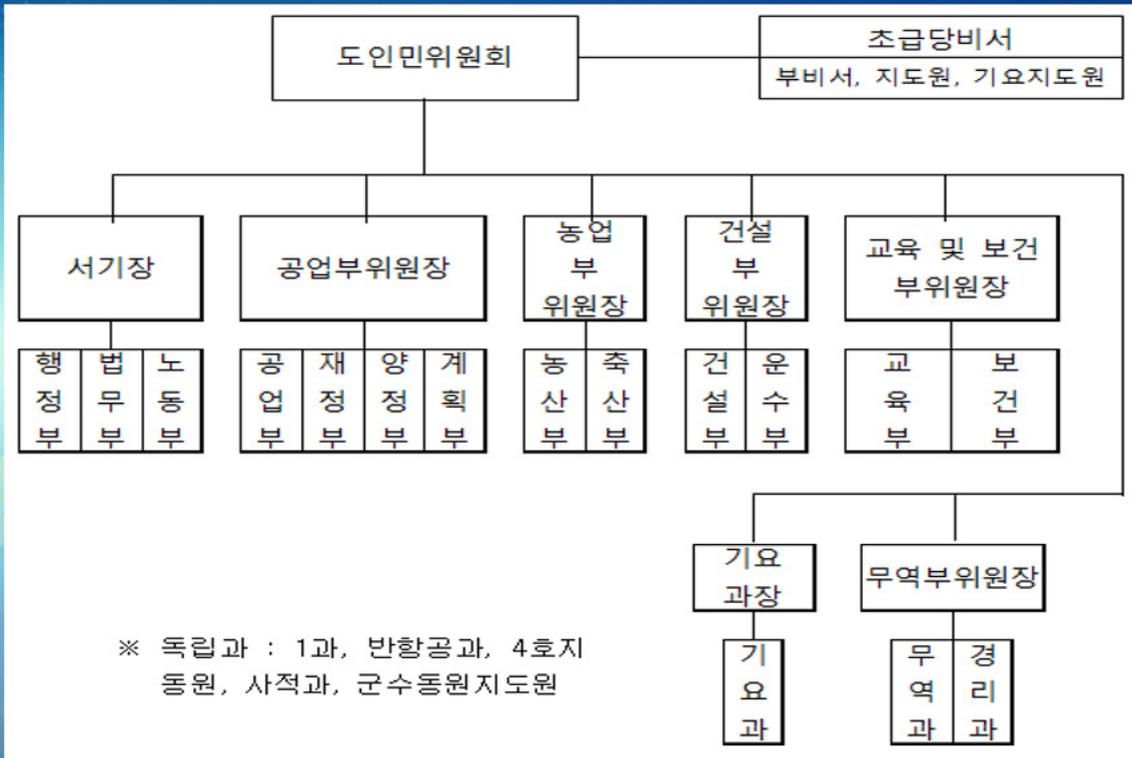
### 북한 교육 제도



의미  
기  
어  
년  
하

의  
기  
어  
년  
하

##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행정조직 (2002년 자료 기준)



## V. 독일 통일교육의 성과

### 1. 독일 통일 과정



## 1. 독일 통일 과정

1969년	9월,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인적 물적 교류 지원, 통일을 앞세운 정책에서 협력을 앞세운 정책으로 전환
1972년	국경선불가침과 영토보전, 무력사용 포기 등 동서독기본조약체결
1973년	동서독일이 함께 유엔 가입
1982년	H. Schmidt 서독총리 동독 방문으로 1국가2체제론
1985년	고르바초프 개방정책, 88년에는 '동구권 유럽 공산세력 국가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
1987년	호네커 서독 방문
1989년	6월23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11월 4일 동베를린 100만 명 시위
1989년	11월 9일 장벽 붕괴, 동독 변혁(Wende) 시작



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Baden-Württemberg)
2. 바이에른 주 (Bayern)
3. 베를린 (Berlin)
4. 브란덴부르크 주 (Brandenburg)
5. 브레멘 주 (Bremen)
6. 함부르크 주 (Hamburg)
7. 헤센 주 (Hessen)
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Mecklenburg-Vorpommern)
9. 니더작센 주 (Niedersachsen)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Nordrhein-Westfalen)
11. 라인란트-팔츠 주 (Rheinland-Pfalz)
12. 자를란트 주 (Saarland)
13. 작센 주 (Sachsen)
14. 작센안할트 주 (Sachsen-Anhalt)
15.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Schleswig-Holstein)
16. 튀링겐 주 (Thuringen)

## 분단 독일 한국 역사

### 독일

2차 대전 종식으로 분단	1945
베를린 봉쇄	1948-49
독일 기본조약	1972
베를린장벽 붕괴	1989
독일 통일	1990

### 한국

1950	6·25 전쟁
1972	7·4 공동성명
1990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통일촉구대회
1991	남북 UN 동시 가입
1998	정주영회장 소떼방북
2000	6·15 공동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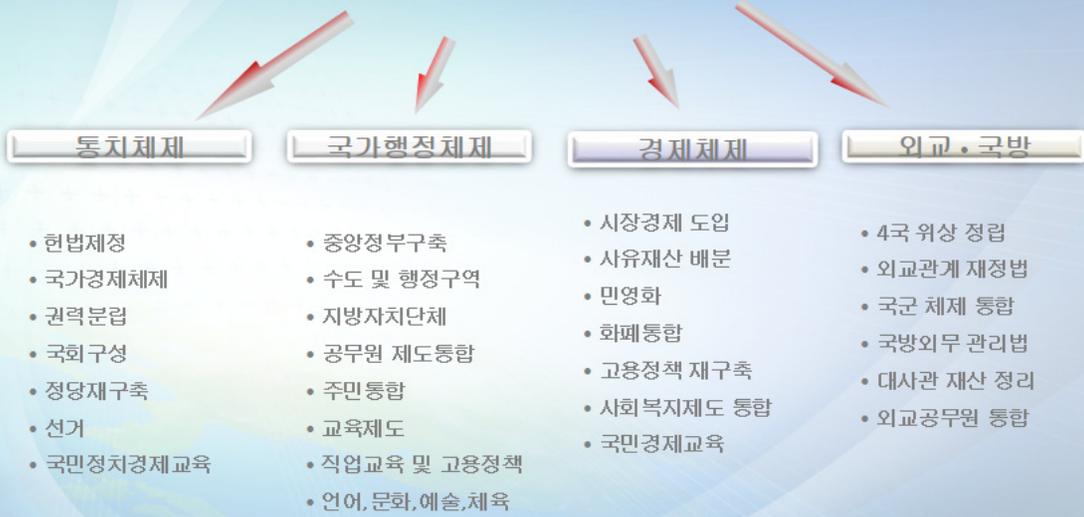
## VI. 통일교육의 향후 방향

### 남북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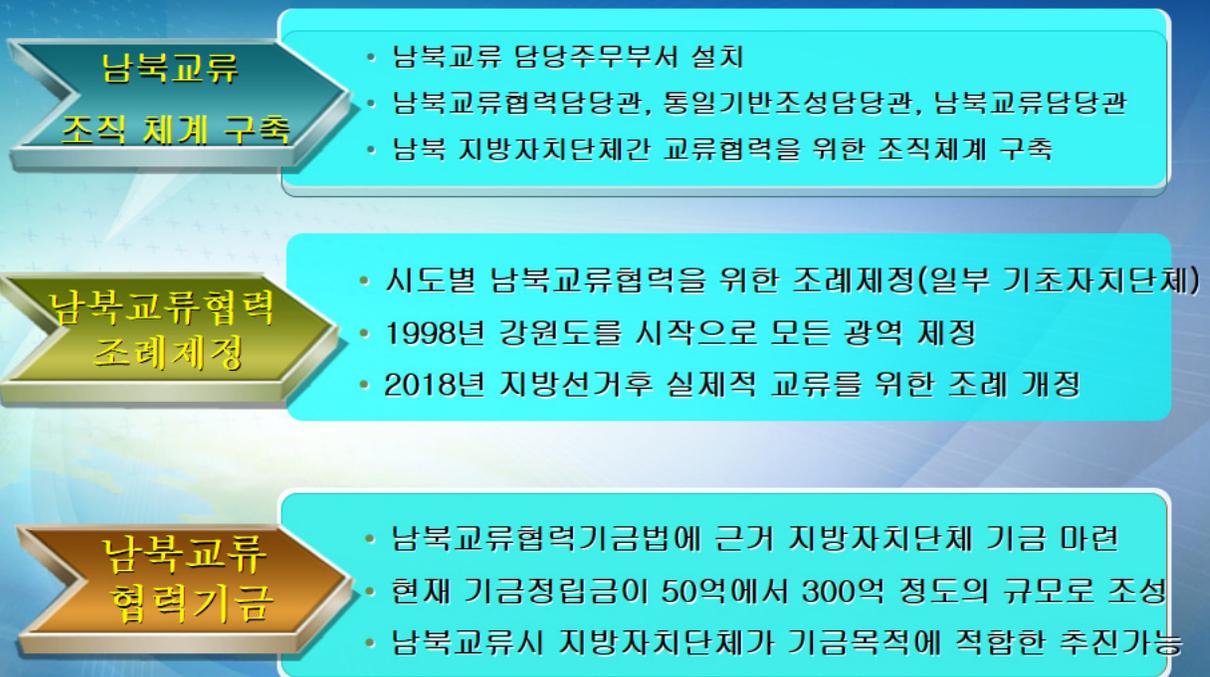
- 국가구성 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 법치국가 이념
- 분권의 의미로서 지방자치 [국가연합이념]
- 국가의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국가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업공무원제

# 통일한국 행정통합 과제

## 통일정부 체제모델 설정



##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준비



##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지원 현황

### 북한지역 물품 및 재정지원

1. 북한수해지역 밀가루 지원(서울시 2010)
2. 용천참사 구호 물품지원(부산시2004)
3. 말라리아 공동 방역(경기도 2008)
4. 못자리용 비닐 제공 (전남 2006)
5. 벼농사 현대화 협력사업(경기도 2008)

### 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6.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지원(인천시 2008)
7.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연어사료공장 협력(강원도 2008)
8. 영유아 이유식 공장건립 (울산시 2007)
9. 배합사료 생산공장 지원(광주시 2009)

### 문화 및 예술 공동사업

10.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지원(서울, 강원 경기)
11. 국제유소년축구대회(경기도 2015)
12.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시범단 참석(전북 2017)
13.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참석(대구시 2003)

## 초등교육과 충청남도의회의 남북 협력

### 초등교육을 통한 북한 어린이 이해

1. 북한 어린이 인민학교(소학교) 이해
2. 북한어린이 학교생활 이해
3. 북한어린이의 놀이 문화 이해

### 초등학생 간의 교류 협력 사업 기획

4. 남북 어린이 축구시합
5. 어린이 사생대회
6. 남북 어린이 개성 문화제 공동 참관

### 충청남도 의회의 남북 교류 사업 발굴

7. 남북 어린이 스포츠 대회 준비 및 지원
8. 북한 청소년 식단을위한 어묵 및 소세지공장 건설 지원
9. 북한 황해북도 생태공원 복원사업 공동추진
10.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녹화사업 공동 추진

# 충청남도 의회의 남북교류 과제

## 학생 교육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

- 학생교육을 통한 북한에 대한 이해증진
- 의회의 협력 하에 공교육과정에서 북한이해를 위한 과목 운영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북한에 대한 신뢰 회복, 대북 지원 정책 추진 여건 조성
- 남북공동체 인식확산 속에서 남북교류를 위한 전문성과 책임감 증대

## 남북 지방의회간 교류, 협력과제

- 북한은 인민회의를 중심으로 지방정권기관이 운영(의원내각제형)
- 비정치적,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사업을 발굴하여 교류 추진
- 충청남도가 3농사업을 통한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공동 발전 역량 결집
- 남북신뢰회복과 소통, 교류, 협력 과정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기대효과

남북 어린이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회복

비정치적, 비경제적 활동을 통한 교류의 시금석

충청남도의 상호 신뢰회복 및 지자체 교류

합리적 교류사업 영역과 절차를 발굴 실효성 제고

한반도의 민족공동체 인식 회복 및 증진

비권력적 통일논의와 국민관심 가능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

## 의정토론회



##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통일 교육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 지정토론

## 우리나라 초등 통일교육의 실제와 향후 방향

박종일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연구원)



## 우리나라 초등 통일교육의 실제와 향후방향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연구원/박종일

### 1. 현재 통일교육의 현황 : 통일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2019년 기준)

- 매년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학생과 교사가 북한과 통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 시행

#### 1) 학생 측면

-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학생들은 ‘북한’의 이미지로 전쟁을 비롯한 군사적 측면, 북한의 정치인이나 독재체제 등에 대한 측면을 가장 많이 떠올림. 또한, 북한은 우리와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음.

-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29.1%의 학생이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함. 2018년 조사 결과에서 이 응답에 대한 비율이 21.6%를 기록한 것에 비해 7.5%p 증가. 전쟁 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학생의 비율은 21.4%, 국력 강화(21.1%)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16.3%) 등의 응답순으로 나타남.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민족의 동질성 측면을 고려한 학생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

-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의 필요성, 통일 이후 미래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이후 미래에 대한 인식의 비율에도 변화가 있었음. 특히 2018년, 2019년 모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그 비율이 변화하여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5%로 2018년 조사 결과에 비해 7.5%p 하락하였고, 반대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5.7%p 상승하여 19.4%로 나타남.
- 학생은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의 경우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조사 결과에 비해 7.7%p 낮아져 47.5%를 기록.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2018년 조사 결과보다 3.9%p 증가하여 28.1%로 나타남

학생이 원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은?

학교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을 진행할 때 교사의 강의나 설명식 교육, 동영상 시청 교육이 대부분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듣는 방식의 교육을 받고 있었음. 학생들은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한다고 답함.

## 2) 교사 측면

-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61.9%로 2018년에 비해 8.9% 상승하여 선생님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5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평화·통일교육이 이념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43.6%)과 교사의 통일 관련 전문성 부족(33.5%) 및 평화·통일교육 수업 활용 자료의 부족(29.2%) 등도 그 요인

- 통일관련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 미만
- 교육 방법 : 동영상 시청과 교사의 강의 혹은 설명식 교육 방식을 활용  
현재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 충남도 현황

- 충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의 ‘충남 평화·통일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내 초·중·고 교원 808명을 대상으로 유레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홍보 부족’을 제일 시급한 해결과제
- 평화·통일교육자료 “모르거나 사용 안함” 75%
-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변화된 통일교육의 방향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불과 20.54%였으며 약 80%는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장 교사들은 도교육청에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평화·통일교육 관련 자료 보급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3. 방향

-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 : 평화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쉽게 설명
- 접근의 용이성 :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료에 접근하기 쉽도록
- 교육대상 아이들에게 차별이 없도록 -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 시대적 흐름 시사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너무 과거 자료 의존)
- 흥미가 있도록

## 1) 하드웨어적 접근

- 조사에 따르면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중요하다고 함.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 비효율적.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평화통일교육 자료의 경우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교재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평화통일 관련 자료가 필요함
- 교육대상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 기존의 연수프로그램 등은 참여한 아이들에게 효과가 좋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됨. 또한 소수의 아이들만 혜택을 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교육에는 예산이 수반됨. 이에 의회와 교육청의 협력이 중요. 잘못하면 비효율적인 예산 책정과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기에 신중함이 필요함
- 오늘 발제문 중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책임기관을 할 것인가? 현재 성인 통일교육에 집중. 강사 파견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현재는 없음. 또한 조직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될 수 있어 신중해야(서울의 경우 국민대학교가 센터로 지정. 형식적) 특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에는 그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 2) 소프트웨어적 접근

- 앞선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북한의 생활 모습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북한의 생활상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항이 교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또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흥미가 유발되지 않으면 안됨.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자료선정과 교육이 필요함(독일 통일 교육 자료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
-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 최근 방탄소년단의 사례를 보면 이에 대하여 아이들 눈높이 맞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결론

평화통일이 정말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설명할 자료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임.

또한 자료가 있더라도 업데이트가 늦거나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여 아이들의 관심 밖에 있게 됨.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과 관계자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통일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 충남도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불쏘시개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임.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아이들이 책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작용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생들만이라도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책과 같은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교육을 실시화되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우리나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

## 의정토론회



##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통일 교육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 지정토론

## 충남통일관의 초등학생 통일교육 방법 및 방향

김희동 (충남통일관 관장)



# 충남통일관의 초등학생 통일교육 방법 및 방향

충남통일관 관장 김 희 동

## 1 충남통일관 통일교육 목적

---

- 건전하고 올바른 통일의식 제고와 통일의 당위성 확산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식을 확립 범국민적인 통일 분위기 확산
-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통일관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을 배양

## 2 통일교육 추진 방향

---

- 초등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찰·체험·탐구 활동으로 북한의 현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탐구의 장을 제공함
- 학교 밖의 체험 및 특별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
-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북한의 현실상을 바로 알리고 통일이후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통일에 대한 꿈을 갖도록 함.

## 3 통일교육방법

---

- 순회교육 : 강의식 토론식 1강좌 및 설문지 작성
  - 가. 통일교육전문가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나. 북한이탈주민 강사 : 북한의 현실상 바로알기
- 소집교육(충남통일관) : 토론식 1강좌 및 질의응답, 체험
  - 가. 통일교육 전문가 :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모노콘서트 :대한민국의 건국-호국-부국-민국의 과정에 대해 뮤지컬 배우의 노래와 대사, 관련영상을 활용한 콘서트 형태의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흥미유발과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참여형 프로그램

나. 북한이탈주민 강사 : 북한의 현실상 바로 알기, 질의 응답

다. 충남통일관 통일체험 : **통일주제로 소통의 시간, 북한말 따라잡기**

-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문화, 언어, 전래놀이** 등을 게임으로 서로의 차이점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 진행

## 4 통일 교육 후 성과 및 문제점

### ○ 성과

가. 통일에 대한 관심 극대화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토크, 토론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 후 남북한 생활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나. 남북한 학교생활에 대한 차이와 이해

- 같은 초등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의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통일 후 일상 생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 문제점

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 언론이나 SNS를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남북한 관계를 그대로 인식하고 있음

나. 청소년세대의 통일 필요성 수치 낮음

- 초등학생의 시각으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싸우려고만 하는 북한으로 인식되어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인식함.

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

-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  
: 막대한 통일비용, 통일에 대한 이익을 피부로 체감하기 어려움

- 통일 이후 북한으로 인해 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인식

## 5 향후 통일교육 개선 방향

### ○ 통일 교육 방향 및 내용

#### 가. 맞춤형 수준별 통일교육

-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역사관과 통일관을 먼저 가르쳐야 함.
- 북한이탈주민 강사 양성으로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북한의 현실상을 바로 알리고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함.

(토론회, 토크콘서트)

#### 나. 통일교육 접근 방법과 내용

- 남북한 통일 후 풍부해질 자연, 지하자원을 소개하여 북한의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은 통일임을 이해하도록 함.  
(과학분야(자연자원 연구 및 활용), 관광, 문화 등)
- 통일 후 국가적인 문제 인구감소, 취업난 극복 등
- 소통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소통, 공감, 그리고 동감의 감정을 자극하여 실천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함

### ○ 통일지정학교 확대

가. 통일지정학교를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나. 청소년들이 직접 통일교육은 물론 통일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함.

분단 70년 동안 청소년들에게 아직도 낯선 이웃이지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된 조국과 안정된 사회를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통일교육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통일의 꿈을 이루어 부강한 나라, 잘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통일한국의 평화통일의 메신저가 되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

## 의정토론회



##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통일 교육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 지정토론

## 초등학교 평화·통일교육 방향

주중한 (충청남도교육청 통일장학사)



# 초등학교 평화·통일교육 방향

충청남도교육청 주종한

## 1. 시작하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안보교육으로 이야기 되었다. 사실 북한 주민은 통일을 하여 함께 살아갈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보유한 실체적인 위협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안보교육을 이야기하다 보니 북한에 대한 관점은 함께 살아갈 민족공동체적인 관점보다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더 많이 언급 되곤 하였다.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발행된 ‘통일교육지침서’에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 정부로 들어오면서 통일안보교육이 평화·통일교육으로 바뀌고 ‘통일교육지침서’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으로 바뀌며 국가에서 기본 지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하고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정부의 목표와 비교해 보면 건전한 안보의식, 균형 있는 북한관에 대한 언급이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평화의식 함양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강조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안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지만 통일을 이루거나 이루는 과정

에서 평화와 민주시민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과거의 통일안보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평화·통일교육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상황이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만 해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문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 급진전 양상을 보이던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교착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와 대북전단 문제,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수록 평화의 중요성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평화·통일교육과 역사교육 등의 운영을 위한 기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2. 평화·통일교육이란?

‘평화통일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을 두고 한동안 왈가왈부도 많았지만 통일부와 교육부 등에서는 평화·통일교육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의 종속개념이냐, 아니면 동등하게 봐야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통일교육에 평화 이론과 내용, 그리고 평화적 시각에서의 분석, 접근, 태도 등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평화·통일교육으로 부르는 데에는 평화의 의미가 통일을 수식하는 도구적인 의미, 즉 통일의 방법적인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평화교육의 독립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을 정의한다면 우리의 분단이 가

저오는 불편함과 불이익 등 분단 상황에 대한 성찰을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가 가져올 나의 삶과 주변 일상의 변화를 알아보거나 상상해보며, 이를 바탕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공존과 나아가 통일의 필요성과 의지를 다지는 교육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3. 초등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학교 평화·통일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

#### 가. 교육과정 중심 평화·통일교육

- 각급학교 교육과정(교실 수업)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 평화·통일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나. 분단 체험을 통한 평화·통일의지 제고

- 분단 현장 체험을 통한 평화의 소중함 인식, 통일의지 제고

### 4. 초등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

초등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으로는 교실수업을 통한 교육, 분단 현장체험, 관련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 가. 수업으로 만나는 평화·통일교육

##### 1)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은 분단 현장체험이나 관련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기본은 교실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북한 이해와 평화·통일 관련 단원이 있는 도덕 교과, 우리 민족의 삼국통일, 고려의 통일 등을

통해 통일 역사와 교훈을 알아 볼 수 있는 역사 교과, 북한 지역의 지리와 경제, 사회적 특징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사회 교과, 문학 작품이나 남북한의 우리말 변화 등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국어 교과 등이 교과 수업 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교육과 관련한 교육 자료는 지난 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개발한 자료가 충남교육청 학생 통일교육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자료는 충남교육청-학생-통일교육-자료실-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 평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으로 탑재되어 있다.

## 2) 토론, 협동 학습 등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우리는 평화·통일교육은 도덕(윤리)이나 사회교과 등 특정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의 필요성, 또는 북한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크게 잘못 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앞서 평화·통일교육의 정의에서도 언급하였듯 평화·통일교육이 목표로서의 통일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남북의 공존과 한반도 모든 사람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교육이라면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즉 통일 이후, 또는 평화가 정착된 상황에서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평화·통일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 평화·통일교육은 교과 내용 보다는 교수 학습 방법, 또는 다양한 수업의 방법 그 자체가 평화·통일교육이 될 수 있다. 즉 교실 속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토론 수업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평화 교육이고, 함께 프로젝트나 과제를 실천해가며 협동을 배우는 프로젝트 수업도 통일수업이 될 수 있다.

## 나. 분단현장 평화체험

분단현장 평화체험은 분단과 관련된 현장 체험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분단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과 불이익 등을 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의 필요성과 남북 사이 평화가 정착될 경우 생길 다양한 편리함이나 이익 등을 알아보는 체험학습을 말한다. 흔히 분단현장체험이라 하면 DMZ나 판문점 등을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분단현장 체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는 찾아 볼 수 있다. 체험 주제에 따른 대표적인 체험 장소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 1) 분단현장 체험: 분단에 따른 불이익과 평화의 중요성 확인

- 파주 판문점, 도라산역과 도라전망대
- 김포 민통선분단체험학교, 애기봉 통일전망대, 강화 평화전망대
- 철원 안보 유적 및 비무장지대(겨울철 두루미 생태 체험과 연계)
- 백령도와 NLL(북방군사분계선) 지역

### 2) 반전·인권 체험(중등): 전쟁의 무서움과 인권 침해 사례 확인을 통한 평화의 소중함 확인

- 노근리평화공원(충북 영동)
- 제주43평화공원, 너븐숭이기념관 등 4·3 유적지
- 거창사건 추모공원(경남 거창, 한국전쟁 양민학살사건 추모)
- 대전 산내곤룡골 민간인 학살지(추모공원 조성 중)

※ 6·25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지는 최근 많은 지역에서 발굴 중임

### 3) 호국보훈 체험

- 국립 대전현충원(호국선열 추모, 봉사활동 등)
- 용산 전쟁기념관

## 다. 교실에서의 분단체험

분단 현장체험 이외에도 학교에서 분단의 불편함을 체험하도록 할 수 있다. 통일교육주간 등 관련 계기교육 기간에 교실, 학년 등을 단위로 분단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앞과 뒤를 중간 기준으로

나누고 하루 동안 앞쪽 학생들은 뒤쪽 출입문으로의 출입을 제한하고, 거꾸로 뒤쪽 학생들은 앞쪽 출입문으로의 출입을 제한하며 분단의 불편함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년 단위로 시행 할 경우 일정한 경계를 정하거나 건물의 층 수를 단위로 하여 통행을 제한하여 분단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한다.

## 라. 북한 음식 체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나는 대표적인 북한 음식은 냉면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대통령 일행이 방북을 했을 때나 남한 인사들이 북한에 갈 때면 어김없이 옥류관을 방문하여 냉면을 먹고는 한다. 그러나 냉면 이외에도 조랭이떡국, 평양온반, 대동강송어국, 가자미식혜 등 북한을 대표하는 유명 음식은 많다. 통일교육주간에 급식에 북한음식을 제공하거나 학생 통일동아리를 중심으로 북한음식을 만들거나 먹어보는 체험을 하는 것도 북한을 이해하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맺는 글

인간의 위대함은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를 바꾸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데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익숙해져가고 길들여지기도 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진정한 평화’의 상태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다. 그러다 보니 평화의 소중함이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는 분단과 남북의 대립 상황이 너무 익숙하여 세계인이 걱정하는 대결 상황에서도 느긋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익숙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남과 북의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길이 있다면 이제는 그 길을 가야하고,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고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분단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통일교육,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인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와  
앞으로의 방향

## 의정토론회



##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통일 교육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 지정토론

## 우리나라 초등학생 통일교육의 방향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우리나라 초등학생 통일교육의 방향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조철기

## I.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전쟁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남북한 간 평화 공존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과의 현실적 대결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학교 통일교육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이를 경계하는 자세를 인식시키는 데도 그 목표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무조건적 적색 공포심에 기초한 수동적 안보의식이 아니라, 민족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폭넓은 시각에서 조망하는 능동적인 안보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을 포함하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는 측면으로 안보의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공통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통일의 과정이나 절차가 자발적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 상황 아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오해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나가는 것, 즉 같음에 대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70여년 간 상이한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간의 만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연습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학습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대해 내용을 분석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 살펴보기로 한다.

## II.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분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육부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2019년에 학생 및 교사들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019년 실태조사 개요

- (대상) 초·중·고 598개교 69,859명(학생 66,042명, 교원 3,817명)
  - 학생 : 초 19,679명(5·6학년), 중 23,094명, 고 23,269명
  - 교원 : 초등 담임, 중등 사회·도덕·역사 교사 등
- (시기·방법) ‘19.10.21~11.29, 우편 및 방문 조사

- 먼저, 북한에 대한 생각으로 ‘협력/지원’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년과 비교하여 11.0%p 감소하였다. 북한과 관련된 이미지로 ‘전쟁·군사’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8%로 전년 대비 2.1%p 증가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통일 필요성’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55.5%로 전년 대비 7.5%p 감소하였고, 반대로 ‘통일이 불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9.4%로 전년 대비 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통일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학교 통일교육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교사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50.4%) △통일교육 자료 보급(48.4%) △교사의 전문성 향상(28.0%) △학생·학부모 의식개선(21.8%) △통일교육 시간 확보(21.4%) 등을 제시하였다.

### Ⅲ. 도의회 차원에서의 초등학생 통일교육 지원방안

#### 1. 예산 관련

도의회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올바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도 충남교육청 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평화통일 이야기한마당” 1,300만원, “교사학생 평화통일 공감 캠프” 4,100만원 등 총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1년에는 “평화학교 온라인플랫폼 구축” 1,000만원, “평

화통일 교육 협력체구축 및 운영” 1,000만원 등이 추가되어 총 6,400만원을 편성하였다. 앞으로 도의회는 학교 통일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 “다양한 체험활동”, “통일교육 자료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학교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없는 통일교육은 과감히 예산 지원을 정리하고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에 대하여는 예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예산 지원 할 것이다.

## 2. 조례 관련

충청남도교육감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16년에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 시범학교 지원”, “통일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조 및 체험 학습 운영”, “자체 통일연수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통일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위 조례에서 규정한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 시범학교 지원, 통일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통일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한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다.

### 3. 의원 연구모임을 결성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변화된 통일 환경에 적합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 속에서 학교 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통일 문제 및 통일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일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므로 학계, 전문가, 담당 교사 등이 포함 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4. 의정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그 밖에 통일 교육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일 교육 관계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